JEB 2000-4

새 천년, 새 경영을 위한

Japan Economic Briefs

2000. 4. 17.

■ 日本 企業의 글로벌 Coporate Citizenship
■ 日本 銀行業界의 大統合
■ 電子商去來에 대한 課稅 對策
■ 日本 經濟 統計

現代經濟硏究院
日本經濟硏究會

□ 일본 기업의 글로벌 Corporate Citizenship[1)]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Global Corporate Citizenship이 중요 과제로 부상
- 기업 시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공헌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해당 기업 내부의 채용・훈련・승진, 공급자에 대한 원조 및 개발, 사회사업에 대한 투자 등도 포괄
- 글로벌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국가에서와 동일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하며, 이는 후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임

○ 問題提起 : Corporate Citizenship 연구의 새 지평

- (기존 연구) 주로 기업의 국내 기업 시민 활동에 초점

- (새로운 과제)
  ・좋은 기업 시민(Good 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현지 기업만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임

○ 主要 槪念 : Corporate Citizenship, 企業의 社會的 貢獻, 企業의 社會的 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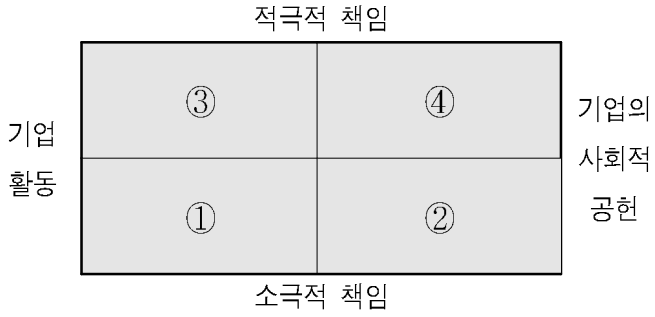
- 기업의 사회적 공헌(Corporate Philanthropy)
  ・기업 본래의 의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예: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에서 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즉 기업에게 부여되는 법적 책임이나 경제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이 지역사회나 일반사회 혹은 경우에 따라 국제사회에 자주적이고 자유재량적으로 행하는 활동
  ・기업의 사회 공헌은 기업 활동의 주변 영역에서 중심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즉 경쟁력 우위의 원천 중 하나로 부상함

1) 이 글은 中村久人의 "グローバル・コーポレート・シティズンシップ"(世界經濟評論, 2000년 2월호)을 요약, 번역한 것임

-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공헌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해당 기업 내부의 채용・훈련・승진, 공급자에 대한 원조 및 개발, 사회사업에 대한 투자 등도 포괄

- 기업시민, 기업의 사회적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

<그림 1> 기업시민, 기업의 사회적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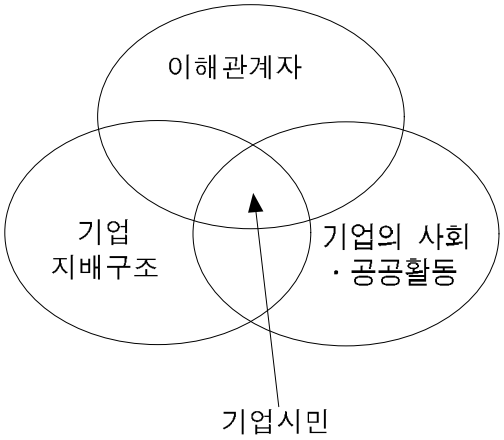


- ① 영리 목적의 기업활동시 이에 수반되는 의무 및 최저한의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 : 최저임금, 납세 등
- ② 기업이 지역 사회를 포함한 각종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의해 기대되는 기본적 활동 영역 : 관련 지역 사회에 대한 금전적, 인적 지원 등
- ③ 사업 활동과의 관계에서, 지역 사회를 포함하는 각종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수행하는 영역 : 주주에게 정보 제공, 장애인 고용 등
- ④ 전형적인 사회적 공헌 영역으로, 기업 본래의 업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도 공공 편익을 위해 경영 자원을 활용하는 영역 : 글로벌 환경 문제 지원 등
- ①+③ : 사회적 책임
- ②+④ : 사회적 공헌
- ①+② : 기본적 기업 시민 → 본래 기업 및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무로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
- ③+④ : 전략적 기업 시민 → 본래적 의무를 뛰어넘어, 사내의 노동조건 개선, 사외의 공익 증진을 위해서도 자발적・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 속에는 ①, ②, ③, ④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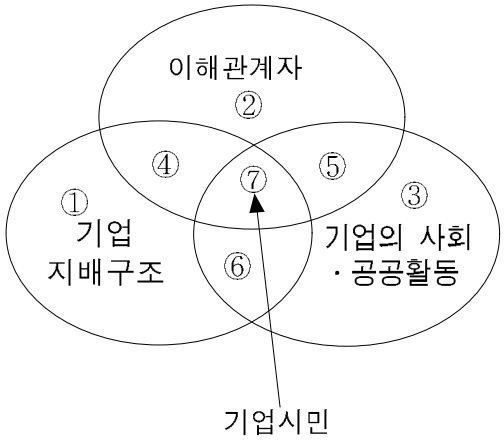
○ Corporate Citizenship의 問題 領域

- Corporate Citizenship의 영역(<그림 2>)
  - 기업 시민은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론, 이해관계자(Stakeholders)론, 기업의 사회·공공활동(Social Issues & Public Affairs)론, 이 세 영역의 일부이며, 동시에 공통 부문임

<그림 2> 기업 시민의 영역



<그림 3> 기업 시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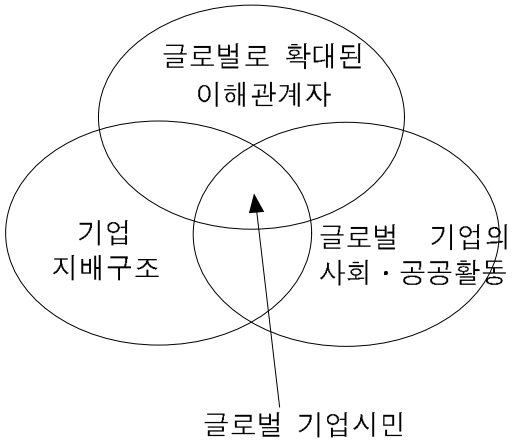


- Corporate Citizenship 모델(<그림 3>)
  - 기업 지배구조 영역(영역 ①): 적법성과 사회적 책임 이전의 문제로서, 올바른 '기업윤리'가 핵심으로 위치지워짐
  - 기업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의 중복 영역(영역 ④): 예컨대 주주총회의 운영, IR, 주주대표소송, 스톡옵션제 등
  - 기업의 사회·공공 활동(영역 ③): 환경, 고용, 인권, 빈곤, 교육, 복지 등의 개선 활동
  - 기업의 사회 ·공공 활동과 이해관계자의 중복 영역(영역 ⑤): 정부관계활동, 소비자운동 및 사회의 리더나 활동가에 대한 대응 등
  - 기업의 사회·공공 활동과 기업 지배구조와의 중복 영역(영역 ⑥): 기업 경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위법성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 정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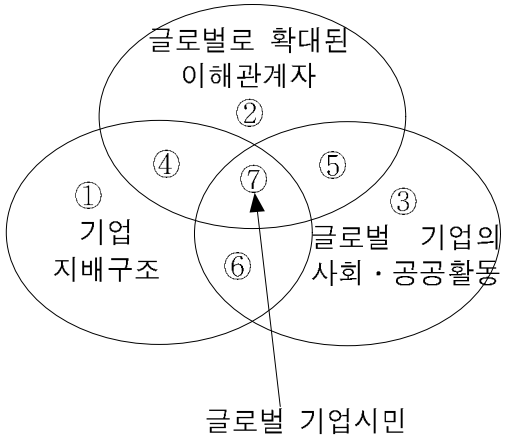
- Global Corporate Citizenship의 개념(<그림 4>)
  - 기업 지배구조: 해당 기업의 현지 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포함

· 이해관계자: 본국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의 각 이해관계자들도 포함됨
· 기업의 사회 ·공공 활동: 본국의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현지 사회의 관련 문제(예: 미국의 마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림 4> 글로벌 기업의 기업 시민 영역



<그림 5> 글로벌 기업 시민 모델



-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모델(<그림 5>)
  · 영역 ④: 예컨대 외국인 주주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일원으로서 기업은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영역 ⑤: 예컨대 현지의 인원옹호단체·환경보호단체 및 활동가 등과의 교섭 등
  · 영역 ⑥: 예컨대 세계적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실천으로부터 글로벌 기업 자체의 행동 규범(예: OECD의 대국적기업의 행동규범) 검토 등

○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국가에서와 동일한 시민도를 발휘해야 함**
  · 환경 문제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서도 국내 시장과 손색없는 활동 필요
  · 후진국에서도 보다 높은 기업 시민도를 발휘해야 함
-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우리 기업의 기업 시민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해야 함**
  · 현재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기업 시민도는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향후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도 선진국 뿐만 아니라 후진국에서의 기업 시민도를 높여 가야함

(박동철, 황동언)

□ 일본 은행업계의 대통합[2)]

- 지난 3월 13일 발표된 三和-東海-아사히 은행의 통합 합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은행업계는 '4대 그룹 체제'로 바뀜
- 향후 일본 은행업계는 차별성을 모색하고 제2 금융권의 통합·정리를 추진할 것임
- 日本發 세계 금융산업의 구조 변혁 가속화에 따라 국내 은행업계도 대형화가 불가피할 전망

○ 은행 大통합을 통한 4대 그룹체제 구축

- 三和·東海·아사히은행이 통합을 합의
  - 三和은행과 東海은행, 아사히은행 등 3개 은행은 3월 13일 2001년 4월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사업 통합 등에 관해 합의하였음
  - 통합후 총자산 103조 엔이며, 이는 이미 합병 합의한 住友은행·사쿠라은행 연합을 상회하여 일본내 제2위, 세계 제2위의 거대 은행이 될 것임
  - 이번 三和·東海·아사히은행 통합 계획은 일본내 대형은행 재편 작업의 완결판으로 평가되고 있음

< 三和-東海-아사히 은행의 통합전 외형 규모 >

	三和은행	東海은행	아사히은행	합계
총자산(조 엔)	45.96	29.52	28.22	103.69
수신고(조 엔)	34.57	20.38	21.85	76.80
대출금(평균 잔고, 조 엔)	30.89	18.31	30.64	69.84
자기자본비율(%)	12.14	12.70	11.92	-
공적 자금 투입 규모(억 엔)	7,000	6,000	5,000	18,000
종업원수(명)	13,779	11,162	12,642	37,583
점포수(해외지점, 점)	336(16)	285(16)	376(12)	997(44)
영업순익(억 엔)	3,100	2,000	1,500	6,600
주요 주주(상위 5사)	日本생명 大同생명 明治생명 住友신탁 도요타自	도요타自 千代田 일본생명 豊島(株) 第一생명	第一생명 千代田생명 安田생명 朝日생명 日本생명	-

2) 이 글은 「最後の都銀再編-三和·東海·あさひが統合へ危機感が生んだ巨大リテイルバンク」(週刊東洋經濟, 3월 25일)를 정리한 것임

- **4大 대형 은행그룹의 탄생**
  - 이로써 일본 은행업계는 日本興業은행·第一勸業은행·富士은행의 '미즈호'금융그룹, 三和·東海·아사히은행, 住友·사쿠라은행, 東京미쓰비시 은행 등의 4개 은행그룹 체제로 바뀜
  - 이들 4개 그룹은 관련 신탁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과 그룹화될 전망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금융그룹의 모습이 곧 가시화될 전망임
  -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신탁은행의 편입, 생손보과의 제휴 관계 설정 등도 진전
  - 또한, 이는 1996년 東京미쓰비시 은행의 합병 발표 당시의 '10개 도시은행 체제'에서 '4대 은행 업계 구조'로의 재편을 의미하기도 함

- **대형 합병의 배경**
  -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와 사이버 뱅킹화 추세에 따라, 일본 은행들도 국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
  -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형 합병의 움직임은 고객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익력을 높여 정보기술(IT)의[1]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 일본 금융산업의 구조 재편 촉발 예상

- **은행 업계의 차별화 전략에 의한 구조 변화**
  - 각 은행그룹은 서로 다른 특징과 차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미즈호' 금융 그룹은 수도권에 지역 기반을 두고, 강점인 투자은행 업무에서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해갈 전망임
  - 東京미쓰비시은행이나 住友·사쿠라은행 등은 많은 기업과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영업에 대한 강점을 활용한 글로벌 뱅킹의 강화 예상
  - 三和·東海·아사히은행은 중소기업 및 개인 상대의 소매 영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東京-오오사카-나고야 3대 도시권에 강력한 영업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방은행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기반을 확대해갈 계획임

1) 三和-東海-아사히은행의 경우 IT관련 투자 비용의 단순 합계가 약 1,100억 엔이었으나, 이번 통합으로 300억-500억 엔의 투자 삭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일본의 4대 은행그룹별 경영 현황 비교 >

	'미즈호' 그룹	三和・東海・아사히	住友・사쿠라	東京미쓰비시
총자산(억엔)	134.8	103.8	99.5	68.1
국내 점포수(점)	680	950	760	320
부실 채권(조엔)	4.8	2.8	3.6	1.8
공적 자금(조엔)	2.5	1.8	1.3	0
영업순익(천억엔)	7.8	6.6	6.8	4.1
영업 강점	투자은행업무	중소기업・개인 영업	대기업 기반	대기업 기반 국제영업

자료: 日本經濟新聞(2000년 3월 15일자).
주: 업무 순익은 2000년 3월기 예측, 나머지는 99년 9월말 현재 수치임.

- **은행 대통합에 의한 제2 금융권 자회사의 연쇄 통합 예상**
  - 일본의 은행그룹들은 대부분 2개사 이상의 제2 금융업종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영업망 조율과 연쇄적인 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임
  - 또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는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일본 금융회사들이 기존에 內外 금융회사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제휴 관계도 핵심 자회사나 지주회사에 의해 흡수・통합될 것임
  - 이에 따라, 신탁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 금융회사는 업종별로 고객 기반이 되는 소득 계층별・지역별 영업 기반의 확대가 지향되고 경쟁 구조의 재편도 유발될 것임

< 대형 은행그룹화에 의한 제2 금융권의 통합 구도 >

은행	신탁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미즈호' 그룹	安田 第一勸業富士	野村・興銀・富士 第一勸業	安田・富國・朝日 第一	安田・日動・日産 大成
三和・東海・아사히	東洋	스바사・東海丸万 東京	大同・太陽・千代田	日本화재・興亞화재
住友・사쿠라	住友・三井・ 中央	大和증권그룹 사쿠라프렌드	住友・三井・日本	住友・三井・同和
東京미쓰비시	三菱・日本	國際	明治	東京海上・日新화재
大和	-	코스모	東京	富士화재

자료: 일본「週刊東洋經濟」(2000.3.25).

- **해외로부터 지적된 일본 은행들의 향후 과제**
  - 미국 신용평가회사 S&P의 由岡隆正씨는 외국계 은행과 일본은행의 합병의 차이에 관해 일본은행의 경우 발표에서 합병이 발족하기까지 기간이 길게 걸림
  - 구미의 은행은 발표후 반년이내에 발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합병후 점포 통폐합이나 인원삭감의 스피드도 크게 다르다고 지적함
  - 이번 三和·東海·아사히의 통합에 대해서도 종래 구조를 바꾸는 데에 스피드감이 없으며,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 보면 우선 공동 지주회사 설립을 내세우고 전략적 비전 책정은 뒤로 미루어진 인상이 강하다는 평가임

○ 한국 금융산업에 주는 시사점

- **日本發 세계 금융업계의 재편 가속화 예상**
  - 일본 은행업계는 4대 그룹체제로 정리됨으로써 장차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력의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이는 세계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업계도 세계적인 新금융산업 재구축의 흐름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 **대형 은행의 육성을 통한 금융개혁 선도**
  - 은행의 대형화 작업이 업계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형 은행이 선도하는 제2 금융권의 구조 재편도 가능해질 것임
  - 또한, 대형 은행의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의한 은행-증권-보험 등의 업종간 경쟁이나 인터넷 혁명에 의한 금융업-비금융업간 경계의 파괴 현상에도 시장 자율적인 수용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

(임진국)

□ 電子商去來에 대한 課稅 對策[2)]

- 電子商去來의 擴大로 새로운 課稅 體系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課稅 體系에 대한 적절한 方案이 없는 상태임
- 稅制의 급격한 變化보다는 中立性의 原則下에 漸進的으로 改善하는 것이 바람직함

○ 電子商去來 課稅 對策의 重要性

- 電子商去來 市場의 擴大

・일본 : 98년 9兆円 → 2003년 71兆円 전망(通産省 조사)

・미국 : 98년 20여兆円 → 2003년 181~191兆円 확대 전망

- 電子商去來에 따른 課稅 관련 問題

① 源泉國으로부터 居住國으로의 稅收의 shift

・A國(居住國) 기업이 B國(소득 源泉國)에서 활동하여 소득을 올릴 경우 전통적으로는 物理的인 營業所(恒久的 施設)가 있는 B國이 소득세를 징수하고 A國은 B國에서 납부한 稅金을 差減하고 徵收함

・전자상거래에서는 B國에 恒久的 施設이 필요치 않으므로 B國은 稅收를 상실하게 되고, A國이 소득 전체에 대해 課稅하게 됨

② 세금 執行의 어려움

・거래 사실,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③ 기업들의 租稅 回避 地域 선호가 심화

2) 이 글은 神田 秀樹(東京大學 교수)의 「電子商去來への課稅」(日本經濟新聞, 4월 4일)를 정리한 것임

・전자상거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므로 본거지를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옮겨 節稅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임

○ 국제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

- **OECD를 비롯해 각국 과세 당국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지금까지 나타난 대응 방안**

① 현상 유지

② 恒久的 施設의 개념을 완화하여 假想(Virtual) 施設도 징세 가능하게 함

③ 항구적 시설 개념을 버리고 源泉國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징수함

④ 源泉國의 징세를 포기하고, 居住國에서의 과세를 강화

⑤ 이 밖에 所得課稅를 버리고, 去來稅(정보의 흐름에 대해 과세)인 비트택스(bittax) 개념 도입

○ 基本 方向

- **中立性, 連續性의 유지와 不確實性의 제거**

・中立性 : 전자상거래의 각 形態間 중립성(특정상품을 별도로 취급해서는 안됨)과 전자상거래와 非전자상거래間의 중립성(상품이 같으면 같게 취급해야) 유지해야

・連續性 : 현재 과세 제도와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稅制가 갑자기 변하면 전자상거래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침

・不確實性 除去 : 稅制가 빈번하게 바뀌면 기업은 中長期的 事業計劃이나 프로젝트를 세우기 어려우며, 나아가 國際競爭力이 저하하게 될 것임

- **漸進的인 制度 改善**

・과세 제도를 빈번이 變更하기 보다는 中長期的인 展望과 視野를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 필요

・종래의 課稅 體系를 유지하면서도 徵稅面에서의 改善을 통해서도 상당히 대처 할 수

있음

· 즉, 去來 情報의 把握을 위해 98년의 電子帳簿保存法(去來의 電子的 記錄을 보존하도록 규정)을 활용하고, 所得 把握을 위해 納稅者番號制度 도입 필요

○ 示唆點

- **國益을 고려한 電子商去來 課稅 制度 마련 필요**

	미국의 입장	유럽연합(EU)의 입장
관세	· 포괄적 무관세화	· 온라인 무형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소득세	· 공급자 거주지에서 과세	· 소득 원천지에서 과세
소비세	· 소비세 면제	· 소비세 과세

· 미국은 자국이 전자상거래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所得稅의 供給者 居住地 課稅, 消費稅의 免除, 無關稅化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EU는 이와 상반된 견해를 보임

· 한국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당분간 수출보다는 수입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EU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所得 源泉國에서도 과세가 가능할 수 있도록 國際的 協力을 강화해야 함

- **전자상거래 과세를 위한 漸進的 準備 필요**

· 향후 稅收 不足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자상거래 과세에 나서야겠지만, 과세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萎縮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과세할 경우에도 課稅의 衡平性, 執行의 效率性이 달성될 수 있도록 課稅 基盤의 마련이 先決 課題임

(김용복)

＜ 日本 經濟 統計 ＞

(1) 국민 생산 및 기업 경영

	실질GDP (성장률) (조엔, 전기비)	전산업 경상이익 (전년비)
1996	490(4.7))	5.8
1997	490(0.0)	0.1
1998	480(-1.9)	-23.9
98. 1/4	485(-0.4)	-25.4
98. 2/4	484(-0.7)	-34.1
98. 3/4	478(-1.6)	-21.0
98. 4/4	476(-0.2)	-24.0
99. 1/4	483(1.5)	2.1
99. 2/4	487(1.0)	9.6
99. 3/4	483(-1.0)	22.8
99. 4/4	476(-1.4)	-

(2) 금융

	M2+CD 증가율 (전년비)	금리	
		콜 (무담보, %)	장기우대 (월말, 엔)
1996	3.2	0.78	3.2
1997	3.5	0.48	2.5
1998	3.7	0.47	2.6
1999.3	3.7	0.18	2.9
1999.6	4.3	0.03	1.9
1999.9	3.3	0.03	2.4
1999.10	3.6	0.03	2.3
1999.11	2.9	0.02	2.2
1999.12	2.6	0.03	2.2
2000.1	2.6	0.02	2.2
2000.2	-	0.02	2.2

(3) 산업 생산

	반도체 IC 생산량 (억엔)	PC생산량(천대)	건설공사수주 (전년동월비)
1996	34,214	9,721	2.9
1997	34,602	9,638	-8.9
1998	30,452	10,501	-9.4
1999.2	2,453	1,106	-2.3
1999.3	2,893	1,447	5.0
1999.4	2,562	760	-15.1
1999.5	2,543	713	-11.3
1999.6	2,751	995	-17.3
1999.7	2,772	1,205	-20.2
1999.8	2,724	941	-6.9
1999.9	3,011	948	-5.2
1999.10	2,998	798	-18.1
1999.11	3,151	1,103	2.4
1999.12	3,033	855	-13.1

(4) 물가・소비・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비, %)	소비지출 (전년비)	신차 판매대수 (천대)	실업률(%)
1996	0.4	1.0	4,851	3.3
1997	2.0	-0.2	4,190	3.5
1998	0.2	-0.8	4,143	4.3
1999.2	-0.1	-4.1	371	4.6
1999.3	-0.4	-4.0	592	4.8
1999.4	-0.1	-2.3	293	4.8
1999.5	-0.4	1.0	284	4.6
1999.6	-0.3	-2.2	362	4.8
1999.7	-0.1	2.5	380	4.8
1999.8	0.3	-0.8	243	4.7
1999.9	-0.2	-3.9	390	4.6
1999.10	-0.7	-3.2	310	4.6
1999.11	-1.2	-3.8	343	4.6
1999.12	-1.1	-5.9	324	4.7
2000.1	-0.9	-4.1	273	4.7

(5) 대외 관계

	국제수지(억 엔)		수출	수입	외환보유고	환율
	경상수지	자본수지	(통관,조엔)	(통관,조엔)	(기말, 억 달러)	(평균,엔/달러)
1996	71,716	-79,936	46.04	36.67	2,193	112.65
1997	129,492	-153,356	51.41	39.96	2,235	122.70
1998	152,271	-146,856	49.45	35.38	2,225	128.02
1999.2	11,059	-9,091	3.59	2.66	2,215	116.66
1999.3	10,380	-2,382	4.31	3.00	2,225	119.78
1999.4	8,425	-1,748	4.02	2.95	2,231	119.81
1999.5	10,275	-10,921	3.56	2.73	2,237	122.11
1999.6	13,825	11,266	4.10	2.92	2,464	120.90
1999.7	13,131	7,016	4.22	2.97	2,607	119.86
1999.8	7,939	-15,444	3.74	3.04	2,613	113.41
1999.9	11,366	3,568	4.27	2.89	2,724	113.41
1999.10	10,848	-12,660	4.13	2.96	2,728	105.97
1999.11	8,097	-14,273	3.89	3.22	2,720	104.96
1999.12	8,715	12,462	4.28	3.15	2,881	102.68
2000.1	6,109	-8,660	3.51	2.99	2,932	105.16